

초등학교 4학년  
독후활동지(학생용)

#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어요



## 똥개 존 늑대 대장이 되다

기무라 유이치 글 | 다카바다케 나오 그림  
고향옥 옮김

## 나는 책을 누구와 읽을까?

▶ 책은 누구와 읽을 수 있을까요? 다른 누구와 읽을 때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①

②

③

④

▶ 《똥개 존 늑대 대장이 되다》를 누구와 읽고 싶은지, 왜 그런지 각자 생각해 보고 발표해 보도록 합니다.

(                            ) 와(과) 읽고 싶다.

그 이유는 \_\_\_\_\_  
 \_\_\_\_\_  
 \_\_\_\_\_

##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

▶ 나는 어떤 책을 좋아하나요? 내가 좋아하는 책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 다음 중 《똥개 존 늑대 대장이 되다》가 어떤 분야에 속한 책인지 체크해 봅시다.

종교    사회과학    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

▶ 《똥개 존 늑대 대장이 되다》의 본문은 몇 쪽까지 있나요?

\_\_\_\_\_

- 쪽수가 읽기에 적당한가요?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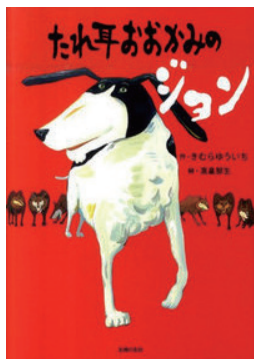
- 책의 앞부분을 살짝 읽어 보세요. 너무 어렵진 않은가요?  
 \_\_\_\_\_

## 책을 살펴보고 내용을 예상해 보자

▶ 책 표지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정리해 봅시다.

- ① 책의 제목 :
- ② 글쓴이 :
- ③ 그림이 :
- ④ 옮긴이 :
- ⑤ 출판사 :
- ⑥ 이 책이 속해 있는 시리즈 :

▶ 제목과 표지에 있는 그림을 통해 책의 내용을 예상해 봅시다.



▶ 《똥개 존 늑대 대장이 되다》는 먼저 일본에서 나왔던 책을 번역한 것입니다.

- 일본어 판의 제목은 ‘치진 귀 늑대 존’입니다. 어떤 제목이 더 마음에 드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일본어 판 《똥개 존 늑대 대장이 되다》의 표지

## 경험과 관련지어 책을 읽어 보자

# 존이 늑대를 처음 만나다 (13~14쪽)

되게 멋지다!’

존은 녀를 잃고 바라보았다. 말투며 달려가는 모습, 모든 게 멋져서 소름이 돋을 정도였다.

‘멋지다! 늑대는 정말 멋지다.’

알 수 없는 감동이 존의 몸속에서 몽클몽클 솟아올랐다.

늑대가 가르쳐 준 서쪽으로 가자, 해가 뉘엿뉘엿 지는 주차장에서 정말로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존은 돌아가는 내내 머릿속에서 늑대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어쩐, 그렇게 멋질까!’

집에 돌아온 뒤, 무와 큐에게 눈을 반짝거리며 늑대

이야기를 해 주었다.



▶ 존처럼 무언가를 보고 감동해서 그것에 대해 오랫동안 여러 번 생각했던 경험이 있나요? 여러분은 왜 그렇게 감동했나요?

# 존이 굶어 죽을 상황에 처하다(21~22쪽)



첫 번째 사냥에서는 토끼가 운 좋게 넘어졌지만, 운은 그걸로 끝인 것 같았다. 존은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하루 종일 뛰어다녔지만 들쥐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배고픈 날은 계속되었고, 사냥을 하지 못하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오늘도 온종일 뛰어다녔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존은 지칠 대로 지쳐 나무 밑동에 누워 버렸다.

‘내가 왜 여기 있을까. 개는 늑대가 될 수 없을 텐데, 다쿠랑 도시로 갈 걸 그랬어.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고, 아무 생각 없이 공원에서 즐겁게 뛰놀 수 있는데…….’

존은 어느새 그때를 떠올리고 있었다.

- ▶ 사냥을 처음 해 본 존은 열심히 노력해도 먹잇감을 잡지 못하자 늑대가 되려고 무작정 숲에 온 자신의 선택을 후회합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기대한 결과를 얻지 못한 경험이 있나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 존이 무와 큐에게 새로운 친구가 생긴 것을 보고 무와 큐가 자신을 잊었다고 생각하다(47쪽)

공원에 무와 큐가 보였다. 본 적이 없는 개와 함께. 셋이서 즐겁게 놀고 있었다.

“아오오오오.”

한참 동안 그 모습을 지켜보던 존은 슬프게 짖었다. 그러곤 뒤돌아 쏜살같이 뛰었다.

“별써 잊은 거야. 나 같은 건 깨끗이 잊어버린 거라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존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뛰고 또 뛰었다. 되도록 공원에서 멀어지고 싶었다.



- ▶ 존은 친했던 친구인 무와 큐가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바랐는데 무와 큐가 자신을 잊은 것 같아 보이자 실망합니다. 친구(혹은 가족)의 모습이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달라 실망했던 적이 있나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했나요? 지금 똑같은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 같은가요?

▶ 나를 속상하게 만들었던 친구(혹은 가족)에게 편지를 써 봅시다.

---

---

---

---

---

---

---

---

---

---

---

---

---

---

---

---

---

---

---

### 소리 내어 읽어 보자

▶ 아래의 글은 《똥개 존 늑대 대장이 되다》의 <처음 세운 공>이라는 장(83~87쪽)을 연극 대본 형식으로 바꾼 것입니다. 친구들과 역할을 나누어 낭독극을 해 봅시다.

#### 낭독극 <처음 세운 공>

등장인물 : 해설, 존, 대장, 켄, 가스, 게로, 구로, 가로 (8명)

존 : (게로에게 입이 틀어막힌 채) 으으으.

대장: 네 이름은?

게로 : 저는 게로라고 합니다.

존 : (혼잣말을 하듯이) 내 공이 억울하게 게로한테 넘어가 버리겠어. (게로의 앞발을 후려 차며)  
아닙니다! 제가 잡았습니다!

게로 : (존을 무시하듯이) 뭐?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구로 : 맞아. 처진 귀가 사냥을 할 리 없잖아.

가로 : 진짜 어이없네. 이 거짓말쟁이 똥개 같으니라고.

존 : 아니야, 하지만 정말로 내가…….

가스 : (큰 소리로) 거짓말도 좀 작작 해. 이 처진 귀야. 이래서 개는 믿을 수가 없단 말이야.  
(대장을 보고 웃으며) 그렇죠, 대장님?

존 : (작게 중얼거리며) 하지만 정말로…….

켄 : 잘 알았다. 게로 혼자서 토끼를 세 마리나 잡았구나.

게로 : 예예, 그렇습니다.

켄 : 어떻게 잡았지?

게로 : (당황하며) 예? 그 그거야, 저쪽에서 달려오는 걸 모두 덥석…….

켄 : 세 마리를 한꺼번에 잡은 거냐?

게로 : 해해. 뭐, 그 그렇죠.

켄 : 참 훌륭하구나. 그럼, 다시 한번 똑같이 해 보거라.

## 좋았던 부분을 찾아보자

▶ 책을 읽으며 가장 좋았던 부분을 베껴 써 봅시다. 기억이 잘 나지 않으면 밑줄을 쳐 두었던 부분을 다시 읽어 봅시다. 그리고 각자 쓴 문장을 발표해 봅시다. 왜 이 부분이 가장 좋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



---



---



---



---



---



---



---



---



---

▶ 각자 좋았던 부분을 발표해 봅시다. 왜 이 부분이 가장 좋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계로 : 예?

켄 : 먹이는 한 마리라도 더 있는 게 좋지. 자, 같은 방법으로 한 마리 더 잡아 보거라.

계로 : 예, 예에…….

해설 : 계로는 하는 수 없이 수풀 속으로 서걱서걱 뛰어 들어갔다. 이윽고 토끼 한 마리가 뛰어나왔지만 순식간에 다른 구멍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계로 : (멋쩍게 웃으며) 헤헤, 지금은 몸이 좀 안 좋아서…….

켄 : (계로를 본 척도 않고 존에게) 처진 귀, 너는 내가 잡았다고 했지? 이번에는 내가 해 보라.

존 : 알겠습니다.

해설 : 존은 아까 그 자리로 가서 덩굴로 묶어 놓은 돌을 높은 곳에 올려놓고, 아까처럼 덩굴을 휘 잡아당겼다. 돌이 툭 떨어졌다. 놀라 튀어나온 것은 토끼가 아닌 들쥐였다. 존은 재빨리 꼬리를 앞발로 꼭 밟아 쥐를 잡았다. 토끼를 잡은 늑대가 누구인지 말 안 해도 다 알 수 있었다.

대장 : 하하하. 그래, 잘 알았다. 처진 귀, 너는 아주 재미있는 녀석이구나. 사냥은 내일도 한다. 내일은 큰 것을 잡을 것이다. 오늘은 꼭 자 뒤라. (웃으며 자리를 떠난다)

가스 : 감히 네 놈들이 거짓말을 해! 내게 창피를 줬잖아!

계로 : 죄, 죄송합니다.

가스 : (들쥐를 물고 가는 존을 보며) 그런데 저 자식이 너무 우쭐댄단 말이야.

해설 : 다음 날이 되었다.

존 : (들뜬 표정으로) 대장님이 오늘은 커다란 것이라고 했는데, 사슴 무리를 노리는 건가?

가스 : (존을 췌려보며) 처진 귀, 늑대가 된 걸 후회하게 해 주마.

- 낭독극을 해 본 소감이 어떤가요? 특별히 재미있거나 어려웠던 점이 있었나요?

- 소리를 내지 않고 책을 읽는 것과 소리를 내서 책을 읽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재미있나요?

## 국어사전을 찾아보자

▶ 책을 읽으며 표시했던, 내가 모르는 단어들에 적고 그 단어들의 뜻을 실물 책으로 된 국어사전이나 온라인 표준국어대사전(stdweb2.korean.go.kr)에서 찾아 적어 봅시다.

모르는 낱말	책에서 낱말이 속해 있었던 문장	낱말의 뜻

## 책 내용을 간추리고 생각을 나눠 보자

▶ 책 한 권을 끝까지 읽고 나서 책의 내용을 간추려 봐요. 사건의 흐름에 따라 내용을 간추리면 보다 쉽게 정리할 수 있어요.

---

---

---

---

---

---

---

---

---

---

---

---

---

---

---

---

---

---

---

---

---

---

---

---

## 인상 깊은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자

▶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왜 그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지를 적어 봅시다.

– 인상 깊은 장면 :

– 가장 기억에 남는 이유 :

▶ 위에서 적은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 봅시다.

## 의태어를 알아보자 ①

▶ 다음은 《똥개 존 늑대 대장이 되다》에서 존이 걷는 모습을 표현한 문장들을 찾은 것입니다. 밑줄 친 단어의 뜻을 찾아 알맞은 번호를 적어 봅시다.

- 존은 터덜터덜 산속을 걸어 다녔다.(15쪽) [            ]
- 존은 잠이 덜 깬 눈으로 휘청휘청 걷기 시작했다.(16쪽) [            ]
- 존이 비틀비틀 걸어가자 눈에 익은 공원이 보였다.(46쪽) [            ]

- ① 걸을 때 다리에 힘이 없어 똑바로 걷지 못하고 자꾸 휘우듬하게 흔들리는 모양.
- ② 지치거나 느슨하여 무거운 발걸음으로 계속 힘없이 걷는 소리. 또는 그 모양.
- ③ 힘이 없거나 어지러워서 몸을 바로 가누지 못하고 계속 이리저리 쓰러질 듯이 걷는 모양.

▶ 포털 사이트 국어사전에 들어가서 ‘걷는 모양’이라고 검색하여 뜻 부분에 ‘걷는 모양’이 들어가는 의태어들을 찾아보세요.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은 말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단어들 중 마음에 드는 표현을 찾아서 적어 봅시다.

단어	뜻



## 의태어를 찾아보자 ②

▶ 다음은 《똥개 존 늑대 대장이 되다》에서 모양이나 소리를 흉내 낸 말이 나오는 문장을 찾은 것입니다. 밑줄 친 단어의 뜻을 찾아 알맞은 번호를 써 보세요.

- 알 수 없는 감동이 존의 몸속에서 몽클몽클 솟아올랐다.(14쪽) [                 ]
- 늑대가 가르쳐 준 서쪽으로 가자, 해가 늠넝넝넝 지는 주차장에서 정말로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다.(14쪽) [                 ]
- “놀라게 해서 미안해.”/ 그렇게 말하고 할썩할썩 물을 먹었다.(17쪽) [                 ]
- “아악! 뿌그르 뿌그르.”(43쪽) [                 ]
- 가까스로 들쥐를 발견했지만 비칠비칠 쫓아가는 바람에 놓치고 말았다.(64쪽) [                 ]
- 존은 썴을 따라가면서 먹이를 야금야금 먹었다.(66쪽) [                 ]
- 무는 무슨 뜻인지 모른 채, 아래를 보며 달달 떨어다.(97쪽) [                 ]
- 가스가 이죽이죽 웃으며 말했다.(102쪽) [                 ]
- 셋이 엉겁결에 뒷걸음질 치자 발밑의 흙이 푸슬푸슬 무너졌다.(142쪽) [                 ]
- 게로, 구로, 가로의 몸이 버둥버둥 흔들리더니 “으아악!” 하고 밑으로 곤두박질쳤다.(143쪽) [                 ]

- ① 큰 거품이 갑자기 빠르게 일어날 때 나는 소리. 또는 그 모양.
- ② 출거나 무서워서 몸을 떠는 모양.
- ③ 덩치가 큰 것이 매달리거나 자빠지거나 주저앉아서 자꾸 팔다리를 내저으며 움직이는 모양.
- ④ 무엇을 입안에 넣고 잇따라 조금씩 먹어 들어가는 모양.
- ⑤ 해가 곧 지려고 산이나 지평선 너머로 조금씩 차츰 넘어가는 모양.
- ⑥ ‘이기죽이기죽’의 준말. 계속 밉살스럽게 지껄이며 짓궂게 빈정거리는 모양.
- ⑦ 작은 꽃구름 같은 것이 잇따라 곱게 피어나는 모양.

- ⑧ 혀끝으로 조금씩 가볍게 잇따라 핥는 모양.
- ⑨ 덩이진 가루 따위가 물기가 적어 잘 엉기지 못하고 부스러지기 쉬운 모양.
- ⑩ 몸을 바로 가누지 못하고 쓰러질 듯이 이리저리 어지럽게 잇따라 비틀거리는 모양.

▶ 위의 문제에서 밑줄 친 단어들이 들어가는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

---

---

---

---

---

---

---

---

---

---

---

---

---

---

---

---

---

---

---

---

## 이야기를 새롭게 만들어 보자

- ▶ 《똥개 존 늑대 대장이 되다》는 인간이 아닌 동물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동화입니다. 《똥개 존 늑대 대장이 되다》를 비롯하여 우리가 읽었던 동물이 주인공인 이야기들을 떠올려 봅시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등장인물이 사람인 이야기로 바꾸면 어떻게 상상해 봅시다. 원래 이야기와 바꾼 이야기 중 어떤 이야기가 더 재미있을 것 같은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



---



---



---



---



---



---



---



---



---



---



---



---



---



---

## 그림을 감상해 보자

- ▶ 책이나 인터넷에서 개를 그린 다양한 그림을 찾아봅시다. 그 그림에서 개를 그린 방식(그림을 그리는 데 사용한 재료, 전반적인 색감, 그림의 분위기)을 《똥개 존 늑대 대장이 되다》에서 개를 그린 방식과 비교해 봅시다.




---



---



---



---

## 창의력을 길러 보자

- ▶ 아래 그림의 말풍선을 채워 봅시다. 《똥개 존 늑대 대장이 되다》의 책 내용과 전혀 관계가 없어도 좋으니, 재미있는 ‘한 컷 만화’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각자 어떻게 말풍선을 채웠는지 발표해 봅시다. 캐릭터가 말하는 순서는 직접 정해 보세요.



## 표현력을 길러 보자

- ▶ 《똥개 존 늑대 대장이 되다》의 뒤표지를 살펴봅시다.

### 늑대들의 대장이 된 똥개 존, 그 전설이 시작된다!

늑대를 만난 운명 같은 그날 이후,  
 늑대가 되기로 한 똥개 존은  
 따뜻한 집을 떠나 거친 자연 속으로 향한다.  
 목숨을 건 늑대 시험, 늑대 패거리들의 괴롭힘,  
 귀여운 토끼를 잡아먹어야 하는 고통 등  
 위험천만한 일들이 존을 기다리는데…….

《폭풍우 치는 밤에》의 작가, 기무라 유리치가 재치와 반전을 선사한다.

- 뒤표지는 많은 사람들이 책을 처음 살펴볼 때 앞표지 다음에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사람들이 책에 대해서 더 알고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광고 문구를 넣지요. 여러분이 《똥개 존 늑대 대장이 되다》의 뒤표지에 실릴 글 중 가장 맨 위에 굵은 글씨로 된 부분을 새로 써 보세요. 그리고 각자 쓴 문구를 발표해 보세요. 어떻게 써야 사람들이 이 책을 더 많이 읽을 수 있을까요?

---



---



---



---



---



---

## 독서 활동을 돌아보자

▶ 아래의 항목에 따라 자신의 독서 활동을 평가해 보세요.

	얼마만큼 달성 했나요?				
	1	2	3	4	5
나에게 맞는 책을 정했다.					
이야기와 관련된 나의 경험을 떠올려 보았다.					
책을 읽고 생각이나 느낌을 열심히 말했다.					
친구들의 이야기를 잘 들었다.					
친구들과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했다.					

▶ 《똥개 존 늑대 대장이 되다》와 관련된 다른 책들을 찾아봅시다. 이 중에서 읽고 싶은 책이 있나요? 있다면 그 이유를 써 보세요.

책 이름	글쓴이와 그림이	왜 이 책을 읽고 싶은가요?

## 책 한 권을 보는 다양한 시각, 독서력과 창의력이 높아집니다.

어린이책사랑모임(어사모)에서는 1년에 2번, 대략 60종의 독서 지도안을 만듭니다. 독서 지도안은 아이들 책을 가장 잘 아는 전국학교도서관사서협회가 추천한 도서를 토대로 장르별로 선별해 만든 것입니다.

독서토론논술 지도안으로 독서 활동을 하면 책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거나 간추리는 안목이 생깁니다. 여러 명의 독서 교육 전문가가 독후 활동 주제망으로 핵심 단어를 뽑은 뒤, '독후 활동 시작하기 → 독후 활동 주제 1 → 독후 활동 주제 2 → 독후 활동 주제 3'과 같은 방식으로 여러 가지 독후 활동을 제시합니다. 이 독후 활동 단계를 경험하면 책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다양한 방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책의 내용을 파악하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작품을 통해 생각하고, 작품에는 없는 새로운 독후 활동을 스스로 시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각의 독서 지도안을 만나면서 아이들은 독서력과 창의력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300편의 독서 지도안 중에 좋은 책을 골라 2018년 국어 교과서 새롭게 신설된 『독서 단원 -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어요』 독서 수업 지도안(교사용)을 만들었습니다. 독서 수업에 도움을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이책사랑모임

### ◆ 4학년용을 위한, 적은 양의 글과 다양한 빛깔의 그림이 담긴 책

도서명	출판사명	저자	그림	역자
콩가면 선생님이 또 웃었다?	천개의바람	윤여림	김유대	
사투리 회화의 달인	마음이음	문부일	영민	
해아와 용의 비늘	바람의아이들	윤순희	양경희	
슈퍼 히어로 우리 아빠	고래가숨쉬는도서관	임지형	김완진	
쓰레기 반장과 지렁이 박사	키위북스	신기해	김이랑	
오늘도 당신의 통장에 8만64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파란자전거	김은의	이영림	
엘 데포	밝은미래	시시 벨	시시 벨	고정아
인터넷 사진 조작 사건	미래아이	김현태	김정한	
열한 살의 가방	조선북스	황선미	김중석	
똥개 존 늑대 대장이 되다	뜨인돌어린이	기무라 유이치	다카바다케 나오	고향옥
시도 때도 없이 사춘기	미래엔아이세움	김혜리	정진희	

뜨인돌어린이

www.ddstone.com

뜨인돌출판(주) 10881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337-9

전화 (02)337-5252 | 팩스 (031)947-5868

뜨인돌 블로그 [blog.naver.com/ddstone1994](http://blog.naver.com/ddstone1994)

뜨인돌 페이스북 [www.facebook.com/ddstone1994](http://www.facebook.com/ddstone1994)

노빈손 [www.nobinson.com](http://www.nobinson.com)